

문 20: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답 20: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 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1:4-7; 디도서 1:2, 3:4-7; 갈라디아서 3:21-22; 로마서 3:20-22; 8:28-30; 요한복음 17:3-6

질문 1: 누가 구속의 사역을 결정했는가?

질문 2: 언제 그 구속 사역을 결정했는가?

질문 3: 구속 사역은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나?

질문 4: 구속 사역은 누가 완성하는 것인가?

질문 5: 구속받을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질문 6: 영생이란 무엇인가?

질문 7: 구속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질문 8: 선택이란 무엇인가?

질문 9: 선택한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질문 10: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질문 11: 구속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질문 12: 구속주는 왜 필요한 것인가?

질문 13: 구원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설명:

우리는 죄의 악함과 비참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적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서 헤어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배웠다. 그러나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문 20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을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다.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구속하는 사역을 계획하신분도, 시작하신분도, 진행하신분도, 그리고 완성시키신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행위)의 언약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죄와 파멸과 비참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게된다. 사람의 길은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도무지 스스로 영원한 형벌을 피하거나 구원을 이룰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이다. 그 이유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의 선택과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부한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행위)의 언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위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그와 영원히 동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내려져야 되는 처벌은 약속대로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사람이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호흡을 주어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던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그와 동거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첫 창조때에 사람이 할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일이요 은혜이다. 죄로 죽은 인간 역시 아무것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계획도,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모두 하나님께 의존할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 창조 (중생)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창세전부터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놀랄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계획,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자들을 영생에 이르도록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영생”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영생은 끝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무한한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할수 없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7:3 을 읽어보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셨을까? 밑에 구절을 적어보라:

---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간적인가? 관계적인가? 그렇다 영원과 영생을 구별 할 필요가 있다.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영생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루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이다.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로 그들의 제한됨을 깨닫게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생은 전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영생은 생명에 이르는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영생에 이르렀나요? 어떻게 해서 영생에 이르렀다고 말할수 있나요?

문답 20 에 따르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과 모든 구원의 과정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미 칼빈의 오대교리를 잠시 논했다. 여기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도록한다.

- 전적부패 (Total Depravity)
-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 성도의 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른다.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자들을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주권자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 구원하시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란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숫자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로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인간은 다 똑같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선택받은 자가 잘라서가 아니다. 또 선택을 받지못 했다고 더 부족한자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자의 은혜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자가 비신자들에게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자랑할수 없는 것이다. (에베소서 2:8) 오히려 신자는 늘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말했다. (요한복음 15:16) 에베소서 1:4-5 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자.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의미를 밑에 적어보자.

---

---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반발한다.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죄인이 죄의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끔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정말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늘 함께 가는데 과연 은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은혜”란 “누릴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림으로 죄의 댓가인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은혜”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공홀”이란 “마땅히 받지도, 누리지도 못할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은혜과 공홀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공홀로 나타나게된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은혜의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계약이며, 아담의 타락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의 약속/계약이다.” 은혜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떠나서는 설명될수도, 이해할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문답에서 공부하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구속주에 대해 잡고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반드시 구속주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 구속주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구속주는 단 한분 밖에 없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의 자리는 선택받은 자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다. (로마서 8: 30)

---

##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7 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 7-1. 언약의 기본 성격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자로서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열매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으며, 오직 그가 언약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원적 낮추심에 의해서 뿐이다.

### 7-2. 행위 언약

사람과 맺으신 첫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 7-3. 은혜 언약

사람이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에 의해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 7-4. 유언적 성격

이 은혜언약은 성경에서 빈번히 유언(遺言, 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贈與)되는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에 관계된다.

### 7-5. 구약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 율법 아래서 그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양, 및 그 외의 모형들과 규례들,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것들은 그 시대를 위해 성령의 활동을 통해, 선택된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 안에서 교훈하고 건립하기에 충족하고 효과적이었으며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舊約)이라고 부른다.

### 7-6. 신약

복음 아래서, 곧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은혜 언약이 주어진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들의 집행이다. 비록 그것들이 수가 더 적고 또 더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더 적게 집행되지만, 은혜 언약은 그것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히, 명백히 그리고 영적 효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된다. 이것을 신약(新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 시대들 아래의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